

예수 수난기

- 사랑의 극치

예수께서는 친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해골터라 하는 데로 떠나가셨으니 이는 히브리어로 골고타라 한다. 그 곳에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했는데 다른 두 사람도 함께 예수를 가운데 두고 이쪽저쪽에 (달았다). 빌라도는 (처형) 명목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여 놓았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왕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씌어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이 명목패를 읽어 보았다. 그것은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씌어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대제관들이 빌라도에게 "'유다인들의 왕' 이라 쓰지 말고 '이 자는 자기가 유다인들의 왕이라고 하였다'고 써 주시오" 하고 말했다. 빌라도는 "내가 쓴 것은, (이미) 쓴 것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단 후 그분의 겉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만들어 군인 각자에게 한 몫씩 (돌렸다). 속옷도 (가져왔다). 그런데 속옷은 꿰맨 데 없이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의 차지이 될는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그리하여 "내 겉옷을 자기네끼리 나누었고 내 의복을 (놓고는) 주사위를 던졌다"고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곁에 서 있는 사랑하시던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부인, 보십시오, 부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시오, 당신의 어머니시오” 하셨다. 그래서 그 시간부터 그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식초로 해면을 등뿔 적시어 히속(가지)에 꽂아서 그분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는 식초를 받으신 다음 “다 이루어졌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영을 넘겨주셨다 (요한 19,17-30).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분

나자렛 예수께서는 가장 멸시받고 천하게 여겨지는 밑바닥 상황에서 죄인 아닌 죄인의 처지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며 돌아가셨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신비스러운 모습이 여기에 있다.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임을 당한 예수를, 그리스도인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느님이라고 고백한다. 버림받아 지독한 고독과 절망 속에서 죽어간 이에게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현존을 감지한다고 고백한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잘것 없던 한 인간 나자렛 예수의 죽음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틀어 인류 전체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는 신앙을 선언한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랄 일이다. 사도 성 바울로는 이 신비를 다음과 같이 찬가에 담아 표현했다.

“그분은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노획물인 양 (중히) 여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셨으니
사람들과 비슷하게 되시어
어느 사람 모양으로 드러나셨도다.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도다.”
(필립 2,6-8)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느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이 지니는 전체 의미는 무엇이고, 그 밑바탕에 깔린 근본 내용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니는 구원적 의미를 결코 그분의 삶과 분리해서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분의 죽음은 오직 하느님과 세상을 위해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시며, 특별히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과 더불어 그들을 위해서 사신 삶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구원사로 이해되는 우주의 역사가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구원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즉 십자가 사건의 근본 동기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지극하신 사랑이다. 사랑이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신비이신 예수께서는 당신의 삶 전부를 이웃과 더불어 이웃을 위해서 나누며 사셨다. 당신의 삶 전체가 하느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보여 주는 삶이셨기에, 그분을 섬기고 따르려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느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가를 힘들여 전파한다. 그렇게 남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의 헌신이 가져온 결과가 수난과 죽음이었다.

하느님과 인간의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계약으로 묘사하는 구약성서를 읽어보면, 하느님께 매료되어 그분과 세상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주며 충실하게 봉사한 이들의 삶 역시 그리스도께서 겪으실 수난과 죽음을 살며시 예시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느님께서 인간과 맺으시는 계약들은 한 없이 신실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 주기도 하지만, 또 다

른 면에서는 인간이 저지르는 무지와 죄스러움에 의하여 깨어지고 배반되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 주기도 한다. 하느님께서서는 각 시대마다 필요에 따라 당신의 말씀을 전할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당신의 신실하신 사랑을 되새기고 기억하도록 사람들을 이끄셨고, 사랑에서 벗어난 이들이 당신께 되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촉구하셨다. 하지만 무지하고 불의한 인간의 교만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끊임없이 박해했다.

인간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구원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결정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이 구원행위는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절정에 이른다. 신약성서는 특별히 '외아들'에 대한 아버지 하느님의 넘쳐흐르는 사랑을 보여 준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공동번역 요한 3.16). '외아들'이라 표현된 예수와 하느님의 관계는 사랑과 순명으로 엮어진 관계이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써 아버지 하느님과 완전히 일치를 이루신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느님의 뜻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시며 강생하신 하느님의 아들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랑의 순명은 끝내 그분을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갔다. 결국 십자가의 길에서 수난을 당하고 있는 실체는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이다.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이 인간의 손에 수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죄스러움이 하느님의 사랑을 박해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의 극치

요한복음은 “과월절을 하루 앞두고 예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더욱 극진히 사랑해 주셨다”(공동번역 요한 13,1)고 전한다. 하느님께서 보여 주시는 사랑은 수난 사건의 절정에 다가갈수록 그 극치에 달한다. 그리고 이 극치에 다가갈수록 상황은 더 외롭고 더 힘들고 더 절망적이 된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선택이 제시되기도 한다. 하나는 자신을 선택함으로써 만나게 되는 악의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자기를 내어주기를 선택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하느님의 선택이다. 고통스러운 현장은 분명히 악의 가능성과 선의 가능성이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는 분명히 공포와 아픔, 혼돈과 소외가 일으키는 어두움이 판치지만, 이러한 극도의 어두움 속에서도 예수께서 어떻게 자신을 내어주시며 하느님을 선택하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다.

예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은 사랑이 지니는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사형선고를 받아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사랑하며 살고자 결심한 우리의 좋은 의도들이 오해받고 단죄받는 순간들을 기억하거나 우리의 삶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고 가야만 하는 작은 십자가들을 기억할 수 있다. 우리는 역시 한계를 지니는 인간이기에 범하는 실패들 때문에 때로는 절망과 좌절에 빠지기도 한다.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비록 앞으로 또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 구할 수 있다. 우리 주위에는 늘 우리의 십자가를 나누어 지는 이들이 있고, 우리 곁에는 늘 우리와 함께 울어 주며 우리에게 위로를 심어 주는 많은 이들이 있다. 아픔을 지니고 있으면서

도 타인의 아픔에 기꺼이 동참해 주며 위로 베풀기를 아끼지 않는 이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가장 슬프고 어둡게 만든 사람들, 사물들, 상황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가장 가난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순간들을 떠올리며, 오히려 그들 혹은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밀착시키고 있는지를 묵상하면서, 보상이 없는 줄 알면서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관대한 사랑을 구하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희망이 우리 안에 움터나도록 주님께 기도드려야만 한다. 어쩌면 이것은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은혜일런지도 모른다.

새로운 각성

십자가 사건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목격자들은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의 넷째 노래' (52,13-53,12)를 통해 예수의 수난과 죽음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다.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 만한 볼품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아는 사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피해 갈 만큼

멸시만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업신여겼다.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앓아 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 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느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는 줄로만 여겼다.
 그를 찢은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었구나”(이사 53,2-5).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 하느님의 구원 경륜을 새
 롭게 발견한다. 우리가 멋모르고 멸시하고 박해한 그이가 바
 로 하느님의 사자였구나 하는 각성은 엄청난 자기 반성을 이
 끌어낸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별 볼품이 없기에 모르
 는 사이에 우리가 무시하는 이들, 때로는 현명하거나 똑똑하
 지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은 것 같기에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구박하는 이들이 어찌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감추어진 의도
 를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결국 그들을 멸시하고 박해하고 고통스럽게 한
 것은 나의 어리석음이요 나의 죄악이었음을 새삼스럽게 자
 각하도록 이끌어 준다.

‘고난받는 야훼의 종’이 또 하나 우리를 일깨우는 것은, 그
 분이 당하신 고통이 바로 우리가 겪는 아픔을 치유하고 있다
 는 각성으로서, 예수의 수난과 죽음이 지니는 구원적 의미를
 일깨운다. 사실 그렇다! 나의 죄스러움과 교만함이 저지르는
 결과로 타인이 고통을 당할 때, 그이가 겪는 아픔이 나의 어

리석음과 죄스러움을 일깨우기도 한다. 그렇기에 예수께서 겪으신 수난과 죽음 안에는 우리가 도무지 파악해 낼 수 없는 심오한 하느님의 뜻이 가려져 있다.

“야훼께서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 하신 일이었다.
그 뜻을 따라 그는 자기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았다.
그리하여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오래 살리라.
그의 손에서 야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이사 53,10).

우리의 죄스러움과 어리석음을 일깨우는 하느님의 빛이 극심하던 고통을 말끔히 거두며 희망의 빛으로 떠오른다는 기도로 이 노래는 마무리된다.

참다운 사랑

사랑이란 우리가 서로 나누는 관계 안에 자리잡는 실체이다. 그러기에 구체적인 상대방이 없는 사랑은 별 의미 없는 추상적 개념에 불과하다. 상대방이 없는 사랑은 도무지 가능하지가 않다. 구체적이고도 특정한 대상과의 관계 속에 자리잡는 사랑이기에, 그것은 분명히 고통과 희생과 십자가의 요소를 동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고통과 희생은 희망을 잉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준다. 이러한 자유로운 관계 안에서 서로 응답하고 응답되는 사랑이야말로 참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의 신비 전체 안에서만이 고통과 아픔, 슬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는 고통과 희생은 엄청나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 사랑은 결국 나를 껴고 잡아 보드랍고 반들반들하게 만들어 네가 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리라.

묵상 성구

마르 14,43-15,47	수난기
마태 26,47-27-66	수난기
루가 22,47-23,56	수난기
요한 18-19	수난기
이사 52,13-53,12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 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었구나.
로마 5,6-11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던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성찰

1. 나의 삶에서나 주변에서 파괴적인 어둠의 힘을 겪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증오나 배반, 혹은 잔인함이나 사악함 등의 힘말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상대하고 있습니까?
2.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 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수난과 죽음을 당하는 신비가 나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진정으로 구원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기쁨의 근원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 밝아올 무렵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묘소를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다가가서 그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던 것이다. 그의 모습은 번개 같았고 그의 옷은 눈같이 희었다. 지키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러자 천사가 입을 열어 여자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들이 십자가에 처형되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줄 압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으켜지셨기 때문입니다. 와서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보시오. 여기서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여러분에 앞서 갈릴래아로 가실 것이니 여러분은 거기서 그분을 뵈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자, 당신들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무덤에서 열린 나와, 그분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마침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마주 오시며 “반갑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래아로 물러가면 거기서 나를 볼 것이라고 알리시오.”

(마태 28.1-10)

부활의 이미지

따스한 입김에 녹는 얼음덩이의 이미지를 통해서 나는 부활의 영성적 의미를 묵상하곤 한다. 이런저런 사건들 때문에 우리들 마음 속에 생긴 응어리진 아픔들이, 그 누군가의 따스하고 수고스런 노력에 의하여 녹아내리며 화해가 이루어지고 용서될 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의 작은 부활 체험일 것이다. 마음 속에 응어리진 아픔들은 마치 차디찬 얼음덩이와 같아서 때로는 그 날카롭게 모서리진 단면들이 가슴을 칼로 베어내듯 아픔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응어리진 아픔들은 마음 속에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만큼 더 차디찬 모습을 더해 자신의 외적 행동에도 점차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아무리 추운 겨울날에도 따스하게 내리쬐는 햇볕 앞에서 그 차가운 얼음덩이가 서서히 녹아내리듯, 우리의 마음에 도사린 응어리진 아픔이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따스한 기운에 노출된다면 서서히 녹아내려 치유되고 화해가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주변의 구체적인 인물들을 통하여 당신의 따스한 사랑의 정성을 쏟아 우리 마음의 응어리진 아픔을 어루만져 감싸 주신다. “여러분은 슬퍼하겠지만 여러분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요한 16.20) 하시며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생긴 응어리진 아픔들이 녹아내려 기쁨으로 바뀔 때, 그것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징표이다. 나의 수고하는 정성이 상대

방의 아픔을 따스히 녹일 때 그것은 분명히 그 상대방에겐 부활의 체험이다. 수고하는 정성으로 나의 아픈 상처를 위로 하고 감싸 주어 그 안에 희망이 깃들이도록 애쓰는 이들은 분명히 나에겐 부활하신 주님이심이 틀림없다. 그렇기에 부활이란, 어둠이 깊이 깃들인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빛이 비추면서 그 안에 새 생명의 기운이 돌아나는 새 창조의 체험이다. 이러한 새로운 창조의 손길이 가져오는 열매가 우리에게 삶의 생기를 주는 부활의 기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야 비로소 사랑은 창조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해된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 나는 누구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역할을 해주는가 하는 질문을 솔직히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성서에 전해지는 부활 발현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께서 위로자의 역할을 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 주시기로 약속하신 협조자는 우리와 함께 머무시면서 위로의 직무를 다하시는 성령이시다. 부활의 은혜는 그렇기에 성령께서 비추시는 은혜이며,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현존이 가져다 주는 열매이기도 하다.

갈릴래아

마태오복음이 전하는 부활 발현의 이야기에서는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래아로 가라고 당부하신다. 묘소 근처에서 당신을 찾고 있던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어서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여러분에 앞서 갈릴래아로 가실 것이니 여러분은 거기서 그
분을 뵈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하시오”(마태 28,7) 하였고,
또 다른 무리의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서 내 형
제들에게, 갈릴래아로 물러가면 거기서 나를 볼 것이라고 알
리시오”(마태 28,10) 하고 일러 주셨다.

갈릴래아는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 곳이다. 하느
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당신의 온 삶을 남과 더불어
남을 위해 내어놓으시겠다는 꿈을 일구신 바로 그 곳이 ‘갈
릴래아’이다. 우리가 하느님을 향한 꿈을 꾸어 마음에 지니
고 일구기 시작한 그 ‘갈릴래아’는 우리 영성의 고향으로서
모든 은혜와 위로의 샘이다. 힘들어 좌절을 겪을 때, 우리의
삶을 생기 있게 해주었던 하느님을 향한 꿈들이 제자리를 잃
고 나의 가슴 속에서 사라져 없어져 더 이상 자신을 움직이
지 못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곳으로 되돌아가 잊혀진 꿈을
되찾아 생명을 되살리도록 주님께서 먼저와 계신 바로 그 곳
이 나의 ‘갈릴래아’인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바뀐다. 쓰
림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마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
나면서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다. “여자들은 두려워하면
서도 크게 기뻐하며 무덤에서 얼른 나와, 그분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마태 28,8). 우리의 마음 속에 채워지는
기쁨은 우리의 삶을 다시 생기 있게 하여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꿈이 다시금 우리의 삶을 경쾌하게 이끌어 주는 용기의



원천이 된다. 이처럼 부활의 원천적 체험은 용약하는 기쁨으로서 죄스런 우리의 삶 속에 으뜸으로 승리하시며 자리잡고 밝게 웃으시는 그리스도의 체험인 것이다.

엠마오로 가는 길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걷는 제자들 역시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자신들을 힘들게 했고 좌절하게 만든 현장인 '예루살렘'을 떠나 멀리 달아나고 있었다. 이들에게 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며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어주시는 분은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우리의 눈에는 가려져 일상의 모습에 숨어 계신 그런 분이시다. 빵이 쪼개어져 나누어질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하느님이시다.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도 잠시, 그분은 또다시 당신의 모습을 숨기신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탁에 자리잡으시자 빵을 드시고 찬양하신 다음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리어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다”(루가 24.30-31).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 찬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루 여정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며 자신들의 가슴에 희망과 용기를 감동으로 되살려 주신 그 나그네가 주님이셨음을 깨닫는다. “이에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해 주셨을 때에 우리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하였다”(루가 24.32).

주님께서는 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실망에 젖은 우리의 마음에 희망과 용기가 솟아나도록 감동과 위안의 원천이 되어주신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채워 주시는 용기에 힘입어 그들을 좌절시키고 그들의 꿈을 짓이겨 버린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다. 우리 자신에게 마음의 눈을 돌려 물어보아야 한다. 내가 되돌아가야 할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나를 못 살게 만들었기에 그 곳에서 도망쳐버린 그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주님은 내 마음을 희망과 용기로 다시 채우시어 그 곳으로 나

를 되돌려 보내신다. 주님께서서는 이제 그 곳에 또 다른 모습으로 숨어 계신다.

티베리아 호숫가

사랑하는 주님을 잃고 슬픔에 젖어 원래의 자기 자리, 즉 주님을 만나기 전의 자기들 삶의 자리에 되돌아온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역시 그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시며 당신을 처음 만나 따라나선 소명의 체험을 되살려 주신다. 우리의 가슴에 실망과 아픔이 저며들어 안절부절하게 될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습관적인 그 어느 곳으로 도망간다. 시몬 베드로는 어부였고, 그래서 그는 자신을 못 견디게 하는 아픔과 좌절을 벗어나고자 애쓴다. 그는 어부였기에 고기 잡는 일이 가장 익숙하고 편한 일이었을 것이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의 동료들 역시 “우리도 당신과 같이 가겠소”(요한 21.3) 한다. 하지만 하나의 좌절은 또 다른 좌절을 가져오고, 바로 이 좌절의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뚝 서신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으나 그 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어느덧 새벽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을 몰랐다”(요한 21.3-4).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쩌면 그렇게도 그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첫 소명

의 순간(루가 5,1-11)과 유사할까! 그분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시오. 그러면 잡을 것입니다” 하였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진 제자들은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걸려든 물고기를 보고 그제야 “주님이십니다!”(요한 21,7) 하며 그분을 알아본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을 때 우리의 꿈을 되살려 주시며 그 안에 소명의 체험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의 현존 앞에서 지나간 과거의 경험이 되살아나는 체험은 분명히 아름답고 놀라운 부활의 체험이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스러움에 짓눌려 질식하고 죽어버린 순수하고 하느님을 닮은 열망들, 그 순수한 지향들을 되살려 그 안에 참다운 자신의 소명을 심어 주시며 다시 우리의 삶을 생기 있게 바꾸어 주시는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들을 통해 바로 그 부활의 놀라우신 신비를 우리에게 이루신다. 그리고 역시 우리 자신들도 바로 그러한 일에 헌신하도록 초대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신비를 매일 미사성제를 통해서 재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재현하는 경신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에 동참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면서 우리 주위에서 기뻐하는 이들, 수고하는 이들, 사랑하는 이들의 모

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애써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미사성제에서 빵이 쪼개어져 나누어지는 순간에 주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또다시 나누라고 초대하신다. 가난하지만 함께 나누는 이들의 모습은 바로 그들 안에서 쪼개어져 나누시는 주님의 모습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남과 더불어 나눌 때 그것은 분명히 부활의 신비를 선포하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일 것이다. 자신을 나누고 쪼개는 행위는 분명히 자신의 교만과 죄스러움을 이기는 행위이다. 자신을 나누는 행위야말로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경험과 죄스러운 경험 속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시는 순간인 것이다. 그분은 늘 우리 안에서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묵상 성구

- | | |
|-------------|---|
| 마태 28,1-10 | 그분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여러분에 앞서 갈릴래아로 가실 것이니 여러분은 거기서 그분을 뵈게 될 것입니다. |
| 루가 24,13-35 |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해주셨을 때에 우리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
| 이사 54,4-10 | 산들이 밀려 나고 언덕이 무너져도 나의 사랑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

- 고린 15,20-28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
으켜지셨으니, 잠든 이들의 만물이십니다.
- 요한 20,19-23 여러분에게 평화! 아버지께서 나를 파견하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보냅니다.
- 요한 21,1-19 어느덧 새벽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성찰

1. 내가 지닌 부활의 이미지는 어떤 것이고, 일상의 삶에서 나
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까? 부활하
신 주님께서는 나의 삶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
가오십니까?
2. 내가 삶에서 지쳐 힘들어 할 때 나에게 힘의 원천이 되는 하
느님 체험을 담고 있는 영성적 고향은 어디입니까? 내가 늘
되돌아가 나의 하느님 체험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그리
스도인으로서 영성적 꿈을 새롭게 키울 그 고향은 어디입니
까?